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2~4/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가시를거두세요:소나무스님의숭늉처럼속편한이야기	광우	쌤앤파커스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4	마음을어디로향하고있는가	백성욱/김원수 엮음	김영사
5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6	조론:불교철학의자기념어섬과실현	승조/자운준식 주해	푼다리카
7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8	도법스님의신심명강의:중도연기의눈으로본깨달음의노래	도법	불광출판사
9	근본불교:붓다의원음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빠알리경전에의거하여엮은붓다의일생	비구 냐아나몰리 편역	고요한소리

책세상

매일아침 띄우는 경책과 위로의 문장들



불영이 띄우는 마음편지
심전일운 지음
담앤북스 펴냄
18,000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복잡한 대중교통에 몸을 실은 채 학교와 직장으로 향하는 아침. 천축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휴대전화를 울린다. 심전 일운 스님이 천축산 불영사에서 보내온 마음편지다.

"마음이 없는 몸이 없고 몸이 없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몸은 저절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마음이 곧 이 우주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싱그러운 산사의 정취와 따뜻한 스님의 마음이 담겼다. 일상에 온기가 돌았으리라.

천년고찰 불영사를 대가람으로 일궈낸 심전일운 스님이 매일 아침 띄우는 마음편지가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보내는 응원의 글을 모은 〈불영이 띄우는 마음편지〉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마음편지는 국내를 넘어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대만, 일본 등 전 세계로 배달되고 있다. 3400회에 가까운 횟수다.

마음편지는 늘 새글이다. 천축산 자락 새벽공기는 차지만 예서 막 길어 올린 스님의 마음이라서 따뜻하다. 아침마다 편지를 받는 1만 5000여 명들은 특권이다.

매일의 마음편지는 선적 사유를 담은 선시(禪詩) 한 편과 짧은 수상(隨想)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편지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 과 '마음' 이다. "당신은 지금 현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스님은,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자신을 잃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

소란한 세상서 고요함
지키는 선시 한 편과
행복함 감사함 용기를
일깨우는 따뜻한 당부

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보시길 희망합니다"라고 응원한다.

〈불영이 띄우는 마음편지〉에 담긴 스님의 선시에는 자연이 전하는 깨달음이 가득하다. 꽃과 바람과 숲과 햇빛 등 불영사의 아름다운 사계절이 매 안거마다 수행 정진하는 스님의 사유(思惟) 속에 녹아서 '자연의 법문' 이 되었다. 스님의 선시를 읽다 보면 세상 사는 일이 쫓겨 체감하지 못하던, 우리 주변에 펼쳐진 자연을 귀하게 바라보고 느끼게 된다.

불영사 회주인 심전일운 스님은 1991년부터 불영사에 주석하며 20여 동의 전각을 세우는 가람불사를 일으켰고, 우리나라 대표 비구니 선원인 천축선원을 운영하는 수행불사를 일궈왔다.

2011년에는 염불로 수행하고 자비로 회향하는 '염불만일수행결사회' 를 결성했다. 이때부터 매일 아침 회원들에게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를 띄우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문자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편지를 전하는 매체는 바뀌었지만 관통하는 메시지는 그대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과 내 마음이 주인이고 세상이라는 것. 스님은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 가며, 내 삶은 오롯이 나의 삶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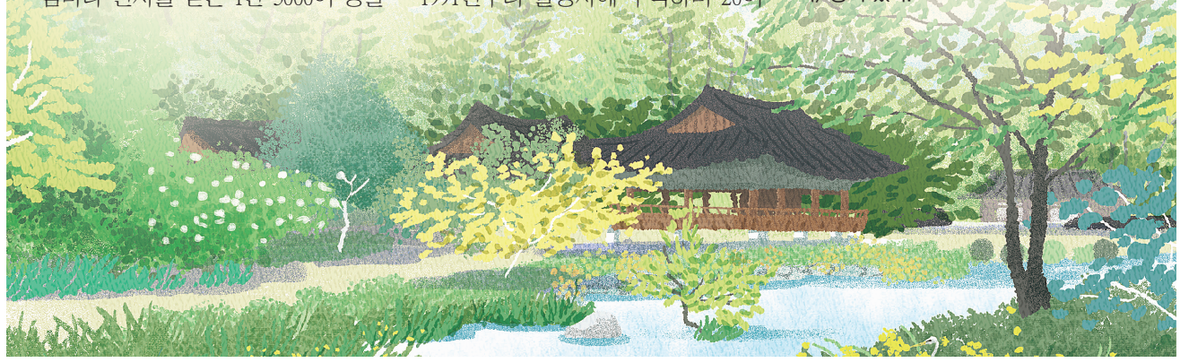
스님이 깊은 산중에 거처한다고 해서 세간의 일에 무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님들의 수행과 우리들의 일상이 '둘이 아님' 을 알려준다. 마음의 본래 상태는 이미 완전하기에, 일상에서 알아차림의 명상 수행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한다.

▲저자 **심전 일운 스님**은?

1969년 경북 청도 운문사로 출가, 1991년부터 울진 불영사에 주석하고 있다. 그동안 불영사는 대가람으로 변모했고 대웅보전과 영산회상도, 불연(佛輦)은 보물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1만일 동안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송하며 매월 1만원씩 나눔을 실천하는 염불만일수행결사회를 결성했다. 회비로는 캄보디아와 인도 어린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김치나무에 핀 행복〉 〈산사에 홀로 앉아〉 등이 있다.



유훈 · 임종게서 '삶'을 사유하다



마지막 말의 철학
이일야 지음
김영사 펴냄
16,800원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잘 늙는다는 것,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주변도 잘 정리해야 하고 죽음과 맞서야 한다. 무엇을 가지고 맞서야 할까? 용기일까. 신념일까? 달관이나 체념 아니면 신의 품이나 내세에 대한 기약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조건들에 적응하기에도 바쁘고 일상을 유지하기에도 힘겹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의 조건 밖에 무언가가 더 있다. 주어진 공간과 시간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들이지만 생존의 조건들보다 중요한 뭔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소한 후회나 아쉬운 한 같은 것은 남기지 않는 삶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마지막 말의 철학〉의 저자 이일야 작가는 독자들이 그 뭔가를 찾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책을 엮어냈다고 말한다.

유훈, 임종게, 묘비명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기 위해 하직하는 마지막 인사다. 여기엔 한 사람의 치열했던 인생 기록이 압축돼 있기도 하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고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들을 다시금 들추어내는 건 떠난 자의 생애와 생각을 엿보는 일이자, 그들과 내 삶을 견주어봄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게 된다.

〈마지막 말의 철학〉에는 소크라테스, 스피노자, 니체, 사르트르, 공자, 장자, 법정 스님, 틱낫한 스님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철학자와 종교인 30명 인물이 시간순으로 등장한다. 각각의 장마다 전반부에서는 등장인물의 인상적인 생애와 대표적인 사상을 소개한다. 그들이 남긴 혹은 그들이 기리

삶이 여무는 순간 남긴 말들서
위대한 인물들의 철학 엿보기

는 마지막 말이 나온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남긴 마지막 유훈이나 임종게, 묘비명을 오늘날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해석했다. 이일야 작가는 카뮈처럼 묘비명이 없거나 순자처럼 유훈을 남기지 않고 떠난 인물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글을 뽑아 비명으로 삼는 재치를 발휘했다.

탈레스와 에피쿠로스, 틱낫한 스님의 말을 통해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내기도 하고 디오게네스와 니체, 이지의 삶을 통해 타인의 시선 및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진정 나답게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사르트르와 이황의 애틋한 로맨스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보게 한다.

때로는 시대와 인간을 통찰하는 예리한 시선과 때로는 삶에 지친 우리를 다독이는 특유의 다정하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죽음이라는 소재를 유쾌하고 친근하게 풀어낸다. 또한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어 독자 스스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을 읽어가는 시간은 '인간이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것인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저자 **이일야 작가**는?

전북대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 ·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전북불교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해답을 찾아 철학과 종교 등 다양한 방면의 공부를 했다. 이를 통해 생과 사는 둘이 아니라는 성찰을 하게 됐고 신문이나 잡지 등에 삶과 죽음을 철학하는 글을 써왔다. 또한 영화나 시, 대중가요 속에 담긴 의미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저술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13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2020 세종도서)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등이 있다.

임은호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니체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비굴하게 행동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앞뒤 재지 말고 자유 의지가 명령하는 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용기다. 〈p.139〉

붓다의 마지막 유훈은 우리에게 인문학의 근본 물음인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에 직접적인 답을 준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이란 본래 우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등명법등명' 이다. 〈p.180〉

평생 무위자연의 삶을 살았던 장자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태도를 견지했다. 제자들은 스승이 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후하게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장자는 제자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태양과 대지가 나의 관이다." 〈p.247〉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 스님이
37년 머문 산, 비슬산

since 1974 불교인문교양 매거진



월간 「불광」
582호
이하석 외 지음 | 176쪽 | 12,000원

"일연이 꿈꾼 삼국유사 비슬산"
대견사, 유가사, 용연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참꽃(진달래)군락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암괴류(岩塊流) 등 풍부한 자연·문화유산이 깃든 비슬산으로 일연 스님의 자취를 따라 떠나봅니다.



불광미디어 www.bulkwang.co.kr | @m.bulkwang | @monthly_bulkwang

불교전문서점 및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정기구독(1년 12권) : ~~144,000~~ → 108,000원 (25% 할인)
정기구독 문의 : 02)420-3200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 가능)

월간 「불광」 579호
돌봄과 수행 공동체, 실상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동의 근본도량으로, 연기법에 의거해 공존과 상생·평화를 통한 생명살림을 지향하고 실천해 온 지리산 '실상사'. 그곳에 담긴 자연, 사람 그리고 불교 이야기.
주수완 외 지음 | 208쪽 | 12,000원

월간 「불광」 580호
입춘, 삼재 그리고 부적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적부터, 삼재부, 화재부, 질병부 등 각종 부적까지. 불광과 함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해보세요!
유현주 외 지음 | 184쪽 | 12,000원

월간 「불광」 581호
촘말로 몰랐던 제주불교
유배지로 버림받았던 땅 제주도. 지금은 '힐링과 여유의 섬' 제주도. 그 속에 우리가 '촘말로(정말로)' 몰랐던 제주 불교문화, 바다·오름·산, 사람들의 이야기.
김새미오 외 지음 | 176쪽 | 12,000원